

‘직지인심 전성성불’의 길 설악에서 열리다



1 진전사, 한국 부도의 원조를 읽다

등쪽으로 갑니다. 긴 기다림 끝에 새해 첫 일출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행렬과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소 어색하지만, 소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설악(雪嶽)의 깊은 골짜기 진전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거기 솟아있는 1200년이 넘는 세월을 파산삼대에 든 노스님처럼 앉아 있는 부도(浮屠 浮圖 佛頭 등 다양하게 표기됨)가 있습니다. 부도는 선사들의 유골을 모신 석재 조형입니다.

새해의 첫날 나산 부도발 기행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를 가진 절에는 어김없이 부도밭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더러는 장엄하게 더러는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는 부도밭에는 앞 시대를 살다가 수행자들의 생애가 있습니다. 강물처럼 면면히 흐르는 전통(傳統)의 맥박 소리가 있고 송죽처럼 푸르게 살다간 구도자의 성성한 법향이 느껴지는 곳이 부도밭입니다.

부도밭은 죽음의 공간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어서, 삶 속의 죽음을 바로 보아야 하고 죽음 속의 삶을 형형하게 알아차려야 함을 가르치는 법문이 울려 퍼지는 또 하나의 설법전입니다. 무형(無形)의 형상을 볼 수도 갖추지 못하고 무성(無聲)의 법어를 들을 수도 갖추지 못한 채, 제멋대로의 감흥에 취해 떠나는 이 기행이 휘발과 역직질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계령에 올라서니 푸른 동해가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설악은 과연 눈을 뒤집어쓰고 있을 때 설악입니다. 낙산사를 지나 7번 국도를 버리고 옛 공방자리를 감돌면서 바라보는 설악의 풍경은 전하를 평정하고 돌아온 대장군의 위세처럼 우렁차고 당당합니다. 그늘진 길엔 빙판이 있어 운전대를 움켜잡게 되지만 둔전리(양양군 강현면)로 접어들자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온 듯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몇 년 전에 왔을 때에 비해 민가가 여러 채 늘어났습니다. 도시생활이 힘들어 귀농을 한 탓인지 쉬엄쉬엄 살아도 될 만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휴식처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는 둔전리를 지나 진전사에 닿습니다. 새롭게 중창해 최근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은 진전사 적광보전이 두툼한 눈이불을 덮고 어느새 앞산을 넘어가는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단아한 석조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나와 골짜기 부도를 찾아가봅니다. 절 마당 어귀에서 30여 m쯤 되는 곳에 부도가 있습니다. 저승꽃 같은 이기가 군데군데 서려있는 부도 앞에 섭니다. 겨울바람 한 줄기가 1200년 전에도 그렇게 숨 쉬고 있었다는 듯 머리카락을 쓸고 갑니다.

부도의 주인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선불교를 전한 도의(道義 생몰미상) 조사(祖師, '도의국사'가 일반

적으로 쓰는 칭호이고 더러 선사로도 칭하지만, 이 기행에서는 한국 선불교의 조조(初祖)란 점에서 조사로 칭한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도의 양식은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지금 까지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도, 탑의 형식에서 부도의 양식으로 옮겨가는 형태인 것입니다. 석탑의 기단부를 받침대로 사용하고 팔각원당형의 원형(原形)인 팔각당 양식의 몸돌을 16장의 연꽃으로 이루어진 연화대에 얹었습니다. 이 연화대의 중간에 사리공이 있어 도의 조사의 사리가 모셔졌을 것이지만 지금 9.5cm 깊이의 그 '적멸의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진전사가 언제 폐사 됐는지도 모르니 부도의 사리공이 언제부터 비어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는도 모릅니다. 다만, 거기 화려한 사리장엄장치 속에 봉안 됐을 도의 조사의 사리가 형상은 자취를 감추어도 두산선문이라는 선불교의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 그 법력만은 아직도 생

도의 조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부도탑비가 전해지지 않고 도의 조사를 언급한 문헌도 아주 드물게 보일 뿐입니다. 혹자는 도의 조사를 일컬어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반역자' 혹은 '혁명가'란 수식을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권의 통치 이념을 부양해주었던 교학불교의 시절, 각자가 심안을 열어 몰록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부르짖음에 화답할 분위기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말 좀 들어봐라"하고 군중을 선동하지는 않았을 도의 조사를 반역자라든가 혁명가라는 다소 전후적인 수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시대의 천책이 남긴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는 도의 조사가 화엄종 스님인 지원승통(智遠 僧統)과 나는 대화의 일편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답한 토막을 읽어 봅니다.

석탑과 원당양식 혼용된 한국 부도의 시초

도의 조사, 당 서장지장 인가 받고 귀국 후 구산선문 기를 닦아

탄탄한 하부 근엄한 몸돌 화려한 상부 조화

생히 살아 있음에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몸돌의 윗부분은 팔각의 지붕돌이 덮였으며 그 위에 연꽃모양의 보주가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을 적에는 탄탄한 하부와 근엄한 몸돌 그리고 화려한 상부가 조화를 이뤄 그 주인의 덕화를 잘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키가 3.17m인 이 부도의 조성 연대는 도의 조사가 진전사로 은둔한 821년에서 그의 제자인 영거 화상의 부도가 조성되는 844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보물 제43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의 조사의 부도를 시원으로 하는 우리나라 부도는 영거 화상의 부도를 기점으로 전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양식을 갖춘 부도는 통일신라와 고려 조에서 일반화 되다가 조선조로 이어지며 석조형이 대체를 이루게 됩니다. 더러 방형과 전래양식을 따르지 않은 독특한 형태도 있습니다.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선불교를 한반도에 전한 도의 조사를 두고 '한국의 달마'라고 합니다.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건너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도리를 퍼려 했으나 시절연인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고 송산(崇山)에 들어가 9년간 면벽 수행을 한 것처럼, 도의 조사도 대륙에서 '교외별전'의 도리를 터득하고 왔지만 고국에서는 그 뜻을 펼 때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둔한 곳이 바로 진전사였습니다.

자원이 또 못기를, "그렇다면 교리에서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 정당함을 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과(佛果)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도의가 대답하기를, "무념(無念) 무수(無修)의 이성(理性)이 신해행증일 뿐이다. 조종(祖宗)이 법을 보이지만 부처와 중생이 얻을 수 없으며, 도성(道性)이 곧바로 드러날 뿐이다. 그러므로 5교 이외에 특별히 조사의 심인법(心印法)을 전했을 따름이다. 그래서 부처의 형상을 나타낸 까닭은 조사의 정리(正理)를 이해하기 어려운 근기들을 대변하기 위해 집지 방편신(方便身)을 나타낸 것이다. 설사 다년간 불경을 전독(傳讀)한다하더라도 이런 것으로 심인법을 증득하려는 것은 영원토록 일이 어려울 뿐이다."

<조당집>에도 도의 조사와 관련된 짧은 기록이 전합니다. 도의 조사가 입당(入唐)하는 과정과 대륙에서 참예한 성지와 스승들에 대한 언급 뒤에 스승인 서당지장이 도의 조사의 법을 인가하며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라"하며 그때까지 쓰던 명적(明寂)이라는 이름 대신 '도 의(道義)'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극찬했다는 이야기가 속을 후련하게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백장회해(百丈懷海) 선사가 도의 조사의 수행의 깊이를 알고



9세기 중엽에 조성된 도의 조사 부도로 추정되는 진전사 부도. 석탑의 기단 위에 팔각원당형의 비신이 결합된 초기 부도 형태다. 아래 사진은 탑신과 지붕돌(원옥) 그리고 연화대의 모습.

"강서의 선택이 몽땅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도의 조사의 시절, 그러니까 9세기 중엽 도의 조사가 37년의 중국 구법생활을 마치고 돌아 온 통일신라 때 설악의 이 공간은 엄청난 오지였을 것입니다. 육조 해능의 적통을 이어 중국 선불교에 우뚝한 입파를 형성한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 그 최대의 선장을 계승한 서당지장(西堂智藏)으로부터 심인(心印)을 이은 도의 조사가 때와 인연을 기다리기 위해 찾아들기에 알맞은 만큼 외진 곳이었을 겁니다. 수도인 경주로부터의 거리가 그렇고, 험준한 산세가 그렇고, 화엄학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힌 불교의 판세가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 조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길지(吉地)로 스며들어 자신이 뿌린 씨앗을 가꾸고 꽃피울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때와 사람의 인연이 찾아 왔을 때 주저 없이 가슴을 열어 발을 갈고 씨



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시대로부터 아홉 자락의 산에 선문이 형성돼 선불교의 화려한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너도 나도 살기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시절이 어려운 것은 사람이 시절을 다스리지 못하는 탓일 뿐, 시절이 사람을 어찌지는 않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 봅니다. 우리나라 선불교의 첫 스승 도의 조사의 부도 앞에서.

일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지등 승강장치 _ 대구 정경사 연등 지등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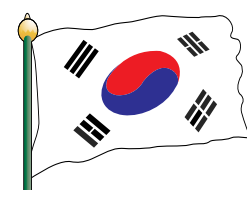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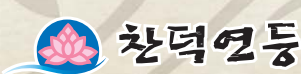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암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